

교회 목록

신랄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아동 사랑

주간 중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25일, 오전 9시·11시)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복된 소식(눅 2:10)이 죄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구주 탄생의 기쁨과 최고의 정성을 담아 이번 주 화요일(25일)에 드리지는 성탄절 예배로 나오십시오. 2000년 전, 별을 따라 죽음의 여행을 감수한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말구유로 나아가 아가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곡을 담은 책자가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교회학교의 자체 예배는 없으며, 1부와 2부 예배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러진 온 가족이 함께 감사와 경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적의 밤'이 있습니다.

성탄절예배 메시지 요약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10~12)

놀라운 소식이 있다

크리스마스는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사 7:14)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구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자신을 낮추셨습니다.(골 2:6-7)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그런데 이 경이로운 크리스마스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마 2:13~14, 16)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분쟁과 다툼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가 경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구주가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1절)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밟을 연약의 후손이며 구주이십니다.(창 3:15)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구유를 찾아갔으며,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그 어린 양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계 21:23, 27)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사 1:18)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지금도 순전하시며, 앞으로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롬 3:23) 모든 인류의 조상은 같습니다.(행 17:26)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죄가 온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의 혈통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순결한 어린 양을 통한 죄 사함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열린 그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구유 안에 누우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12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쉽게 될 수 있는 곳에 계셨지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초라하고 지저분한 마구간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대와 다름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아닌면 길을 잃어 버립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 버립니다.(히 7:2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마 28:20 : 히 13:5-6)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요,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참 복음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30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

2007년!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말 3:6)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으로 교회 재정에 관한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이 당회와 제직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모든 절차상 투명하게 진행된 교회 재정에 관한 결산 및 예산의 내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행 24:16)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다음 주일(30일) 찬양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30일) 찬양예배 시에 제6차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ohn 14:6)

After three years of ministry, Jesus prepares the disciples for His departure. He wants to conclude His work before He goes to the cross. He explains His last will in chapters 13~16, and finishes His sermon with an intercessory prayer to His Father in the whole of chapter 17. The time frame of John 13 is set during Passover, His last supper. When the meal is finished, Jesus takes a towel and some water and begins washing the disciples' feet. He tells them, "If I then, the Lord and the Teacher,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Jn. 13:14) Later, becoming troubled in spirit, He takes a small piece of bread and dips it to reveal His betrayer. (Jn. 13:21~26) Then, He encourages them by saying,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n. 14:1~2) He promises them heaven. Thomas does not understand the way to heaven. He questions Jesus,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do we know the way?" (Jn. 14:5) He asks the right question. It is the question of life; a really good question for us all. As Christians, we have spent this last year living the gospel. Since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07, we need to seriously make sure that we know the way to heaven. There are not many ways to the Father in heaven, only One, do you know the way for sure?

Jesus is the way to heaven. He did not say that He would show us the way. He did not even point and say here is the way. He said, "I am the way." (14:6) He wants us to follow Him. Do you think you can follow Jesus to heaven? He was baptized, you were baptized, but you are still lost. He loved His disciples and others, you love Christians and others, but you are still lost. He was a man of prayer, you are also a person of prayer, but you are still lost. Whatever Jesus does and you do, you will still be lost. How do you solve this problem? How can you find salvation?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Whoever believes in Him, not follows Him, will have salvation. You must have faith! Acts 16:31 say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Is Jesus your Lord? Do you really believe in Him? Ephesians 2:8~9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The way is not about having a good time here on earth. It is all about faith, believing in the Lord Jesus Christ. Romans 5:1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Jesus is the source of truth concerning heaven. Many seminary professors and religious people like to use their imagination when it comes to heaven. They distort the truth. Many of today's

pastors preach that heaven is on this earth. Their focus is on earthly blessings, like money and material success. Some folks think that only 144,000 people from this earth are going to make it to heaven. They base their thoughts on Revelation 14:1~3, "Then I looked, and behold, the Lamb was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one hundred and forty-four thousand, having His name and the name of His Father written on their foreheads..... And they sa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and no one could learn the song except the one hundred and forty-four thousand who had been purchased from the earth." Others think that heaven is just a state of mind. Honestly, the Bible reveals some truth about heaven, but overall no one knows that much about it. What is clearly revealed is that Jesus Christ is the source about truth in heaven. He tells us that heaven is a prepared place (Jn. 14:2), not a state of mind, where He will take Christians after death,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3) We can depend on the words Jesus gave us about heaven. He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v. 6) We can rely on His word absolutely, and believe in Him exclusively.

Jesus is the source of life concerning heaven. He invites you there! If He is not your source of life, then you cannot stay. He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v. 6) John 1:4 tells us,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Whoever goes to heaven needs to stick with Him because He is the life. It is not the blessing things of heaven that give you life.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6:35) If you think heaven is great because it offers eternal life and has no hunger, then you are in trouble. Jesus says,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Jn. 11:25) The life is the most valuable thing. The life is precious: In this life, humans have life, but they lost this truth. People commit suicide, perform abortions, and practice euthanasia. Each moment of life is priceless, but only Jesus provides the life that lasts forever. He is the only source of eternal life.

My dear friend, Jesus is the only way to heaven. He reveals the truth about heaven, and provides the life that continues in heaven. Please, come in faith to Jesus and be sure of heaven.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07. How can all of us here, right now, make sure that we receive the blessing of eternal salvation? Jesus asks us to build His church, and all year long we have been building. I want every builder to know that Jesus is the way, truth, and life to heaven and joy forever. Only believe in Jesus Christ, not in your way, not in your truth, and not in your life. All your efforts are for nothing, but your faith is for everything! 🙏

다음 주일 설교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김성관 목사

3년간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을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16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설명하신 후,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그 후 예수님은 딱 한 조각을 찢어다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요 13:21~26)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요 14: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요 14:5) 그의 질문은 타당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난 일 년 동안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200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잃어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도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잃어 버린 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떠나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31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베소서 2:8~9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길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종교인

들이 천국에 대해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천국이 이 땅에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돈이나 물질적인 성공 같은 세속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오직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계시록 14:1~3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앉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6절)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천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6절). 요한복음 1:4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만약 천국에 영생이 있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벗진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생명을 얻고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살과 낙태, 안락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귀중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오늘은 200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길과 자신의 진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가장 귀합니다! ■

크리스마스 메시지⑤ (금요찬양집회)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신다

기독교였다. (사 11:1,10; 롬 15:11~12; 계 5:5) 누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록하였다. (눅 2:4~5)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마 1:23)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인 말씀하신대로(마 1:22)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요 1:11~12)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사랑의 실존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손꼽아하며 기다린다. 선물에 대한 기대감, 교회마다 있는 특별찬양, 복지단체의 봉사활동, 또는 여행준비로 바쁘진다. 그러나 참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로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참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을 참 소망과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다. (눅 2:12~14) 모든 피상적인 형식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의미를 찾는 책 하는 것이 아니다.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리스도께로서 오시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말기유에 아기가 누인 것을 기대하며 그 아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것이다. 모든 복잡한 환경과 전통에서 벗어나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2007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 뵈고 모셔 들이는 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바로 그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들어 올리시고 그리스도의 팔로 아무런지시며 그에게로 이 세상을 끌어안아 주신 날이다. (막 10:16) 소망과 진리와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매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다. 우리의 심령에 늘 찬송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날이 곧 크리스마스이다. 크리스마스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창조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신다. (히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려보라고 해 보자.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들, 목자들, 여러 모양의 동물들과 천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현대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말기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금년 내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슴에 간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서 사랑해 온 그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을 메워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셨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말하여 준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탄생하신 날이다.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이며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다. 그 나라를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사 9:6~7) "오! 주님의 백성들이여! 어서 나와 어둠과 어둠의 빛 가운데 살지마." 은총의 말씀이다. (사 2:5) 저주받은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 1:14)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주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자. 아멘.

① 크리스마스 선지자 (사 21:5)

'이사이'란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자를 가리켜 '크리스마스 선지자'라고 부른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은총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자.

②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 준다 (살전 3:11-13)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임하신 그 불빛을 다시 밝히면서 우리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약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마 5:16) 기쁨과 낙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웃음, 그 장래 일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자.

③ 아직도 세미한 음성 (사 11:1-10)

이사야는 성령의 역사로 크리스마스가 항상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하고, 천대받고 버려진 자들에게 새 생명과 기회와 시작이 있다. (고후 5:17) 은총의 상처와 행복이 함께 있다. 그것에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뿌리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의 자녀들에게 내려진다. (갈 2:20)

④ 분열과 괴멸 (빌 1:13-11)

성경 전체가 독립적인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본체를 이룬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데까지 분열시키기를 즐겨 한다. 믿음까지도 다양성, 특이성, 분열을 낳아서 통일성, 단일화시켜 과소 평가하려 한다. 기독교의 믿음의 가장 크고 좋은 면은 나눌 수 없다. (고전 14:3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1)

(*지난 7월 27일부터 매금요찬양집회 때에 선포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요약했습니다.)



를 초월한다. (롬 3:22,27,30) 크리스마스는 문제 해결 대신 기뻐해야 하는 기쁨 그 자체이다. (빌 4:7~8)

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라 (사 35:1-10)

크리스마스는 찬미와 기쁨과 선물의 날이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찬양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듣지 못한다. 대중음악은 듣거 들으면서도 찬양에는 귀를 막고 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찬양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 맺자. (사 35:10)

⑥ 휴전인가 평화인가? (빌 4:1-7)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장하기 원하신다. 평강은 우리의 논쟁이나 변증 또는 외침 가운데서 잠깐 동안 쉬는 휴전이다.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휴전'과 같은 일시적인 '평화'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인가? (눅 2:14)

⑦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사 7:10-16)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역사 속에 임하셔서 징조를 예고하여 주신 날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인 뿌리에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직도 죽은 나무에 장식하는 거짓된 삶을 계속하겠는가? 아니면 죽은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다.

(다음 주에 계속)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어둔 밤이 밝았네

✧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하원(유아부)

✧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드릴 경이를 준비 할 거예요!

차지호(유아부)

✧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예수님! 저는 따뜻한 베풀게서 태어났는
데, 예수님은 추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
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저도 예수님을 아주 좋아해요!
최서정(유치부)

✧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
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 생일 날이
예요! 저는 그날 예수님 생일 축하드리
는 찬송을 부를 거예요!!!
김준영(유치부)

✧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
에게는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있
어요.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이 예수님
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사랑을 모르나 봐요. 그래서
악이 너무 아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여 예수님을 전
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서연(유년부)

✧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사
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예요. 우리들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번 크리스마
스에는 예수님께 화를 완결을 선물로 드
리고 싶어요.
김도현(유년부)

✧ 예수님 탄생 축하드려요. 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보다는 예수님의 탄
생을 생각할게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로 우리 아바가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이진솔(중동1부)

✧ 예수님, 저는 천천히가 다니는 해
열이예요.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구
원의 모든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사
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까지나 제
마음속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세요! 예수
님 사랑해요!
김혜원(소년부)

✧ 예수님 저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
사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저와 함께하셔
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올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이 탄생하신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언제나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하루동안 뿐만이 아니라 365일 내내 예
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김예림(중동1부)

✧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크
리스마스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강성준(중동2부)

✧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예수
님이 탄생하셨으로 인하여 제가 구원받
을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님께서는 생애나는 마구간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
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로
이후신 구원의 사랑을 전할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다 믿지 않는 사람
들에게 전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
다!
남재현(중동2부)

✧ 가장 낯고 천한 곳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사를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
게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
도를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성민(중동3부)

크리스마스의 기적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나름대로 기뻐하며 화려한 파티를 하며 즐
겁게 지낸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크
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
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날이다. 사람들이 하
나님을 찾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이 사
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이
다! 2000년 전에 더러운 마구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죄
인인 나에게로 오셨다. 죄인인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이
내게 내려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진정한 기적이다.

위임목사님은 설교 중에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중 영원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그 초라한 마구간에 보내셨다고 하셨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현실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영원의 세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바라
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세상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관해 모
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예수
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
고 싶다.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강문구(대학부)

예수님이 계신 그 곳,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내 나이 65세 되던 해에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남편을
여의었다.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출가한
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믿음생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 무척 애를 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외로움만 더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후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내 나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17일자 <주간충현>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은 매우 중요찬양집회 시, 자적
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적힌 기사를 보았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러나 순간 '찬양기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주제에'라는 생각이 스쳤
다. 찬양대라고는 교구찬양 때에 불러나 찬양대석에 서 본 경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계속해서 기사를 읽
어내려 가니 문득 '찬양대원의 자격은 노래를 잘 하는 분에게만 한정
되지 않습니다. 음악적 자질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
하신 성도라면 누구나 찬양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오십시오.'라는 기사에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 예루살렘 찬양대원이 되기로 다짐했
다. 그러나 이전 다짐 후에도 다른 성도님들이 나의 노래 수준을 뒷받
쳐주려 격정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찬양대원의 모집 기사 중 자격
부분에 '형편없이 미흡을 죽죽 그어 몇 달 동안 가장 속에 넣고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주님의 은총으로 예루살렘 찬양대원이 되었
기 때문이다. 한 주 전에 찬양곡을 받으먼 기사부터 외운다. 늦게 예수님
을 영접한 탓에 내가 위우고 있는 찬송가가 많지 않아 한 주 내내 가사
를 붙들고 외워야 한다. 찬송가 가사 속으로 들어가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종한
고통 받아 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는 나이 들고 초저녁
잠 때문에 중요찬양집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핑계도 사라졌다. 특히 찬
양연습 전 열심히 드리는 중보기도로 나의 기도생활이 더욱 풍성해졌
다. 이제 내 나이 팔십,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
이 계신 그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겠네." 아멘.

정점심(은빛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12. 19.)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24~25)

히브리서 7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한 뒤에 멜기세덱을 만나 십일조를 드렸다. (히 7:1)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신 제사장으로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같은 분이시다. (히 7:2-3)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레위지파가 아니면서 과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은 오히려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율법과 유한성을 가진 제사장직이 아닌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히 7:14)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밝히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유체에 상관된 제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 7:15-17; 시 110:4)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명제로 된 것이다. (히 7:20)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 7:24)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귀신된 몸이 구원에 있네.” (찬 113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 (히 7:25) 또 문제는 우리의 영원이 걸린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달리다듬(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막 5:41) 이 때 그 아이는 살아났다. 십자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 11:43) 이 말씀에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다. (요 11:44)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다. “너 근심 걱정 말라라. 주 너를 지키리.” (찬 432장) “아무 일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 342장)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항상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신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무척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힘과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가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지위, 신분, 나이 등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무엇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가시며 나시니라” (마 19:13-15) 거저 소경 바디매오도 만나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막 10:49-50)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지탄받던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주셨다. (눅 19:5)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눅 19:10)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구원을 주셨다. (롬 10:39)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골 1:13)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2000년 전 메테레함 말류유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되었다.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 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뒤에 승천하셨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롬 8:34) “이것이 나의 간증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 204장)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이심을 믿는가?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의 유혹에 빠져든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살존하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전기가 힘든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눅 23:34)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졌던 군인들과 갇지 않은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말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려에 계신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눅 24:6)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메테레함 말류유에 있는가?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화려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리는 분명하다.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욕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단순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된다. 말할 수 없는 갈보리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앞에 있지도 않은가? 이 모든 것을 향해 최고의 찬송을 드리라.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찬 123장) 아멘.

마가복을 강해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새벽 4:40)에서 생생한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1:29-34)

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쓰여진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접화하였다. 마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마가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자를 경시하는 부분(“일부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막 5:25.41, 6:3, 7:26, 12:42, 13:3, 15:40.47, 16:1)이 있기는 하지만 마가의 초점은 분명하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구주시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분명 한 초점을 가진 마가는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기록하였다.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웠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서 기가들떠온 아나과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반응을 전개하고 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안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막 1:29) 회당에서의 놀라운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이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에 이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았다. (막 1:30)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으며 시몬의 장모는 고침을 받았다. (막 1:31) 엄청난 기적 앞에 사람들은 놀랐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병을 고침받기 원하였다.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다.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막 1:32-33) 이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막 1:34)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특히 예수님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 1:34)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자주 볼 수 있다. (막 3:12, 8:30, 5:43) 이렇게 약한 열병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었는데 정작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에 관심조차 없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을 뿐이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권위 있는 가르침과 병 고침 사역의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마 11:4-6) 예수님을 통해서 입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마 12:28) 그러나 세상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은 없다. 단 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행복해지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 이 약한 모습을 지금 곧 회개하자!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행 10:38) 믿음의 실천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 11:25)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기 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자! 아멘.

순종의 기회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난 6월에 갔던 선교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역은 달랐지만 동일한 선교국에 4개월 만에 다시 오니 지난 번 사역과 자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이게 더 나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주님은 저를 깨우치셨고 저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씩 방문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접기도가 끝나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인 양 저의 손을 꼭 잡는 아주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시던 할머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서로를 마주보며 찬양을 부르던 아이들…… 복음을 기쁘게 영접하던 많은 영혼들이 기억 납니다. 반면에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선교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이 문재가 아닌 믿음의 순종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ایم을 통해 이웃과 또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은주(집사, 10교구)

우리의 사역지가 갑자기 변경되었다. 나를 비롯한 몇 명의 팀원은 변경된 지역에서의 사역 경험이 있었다. 그곳은 사역이 매우 힘든 곳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포교활동이 불법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팀은 사역지로 향했다. 이 나라는 공산국가로 마을마다 5~6집을 한 단위로 서로 감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외국인이라는 호기심으로 우리와 말을 주고받다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좌우를 살피며 주위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망울은 너무나도 선하고 맑았다. 우리가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면 선풍 대려가 물까지 대접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맑고 깨끗한 심성을 지닌 것 같다.

사원에서 만난 한 아이는 고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원에서 살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우리와 함께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했던 그 아이의 간절한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자유로운 사역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웃으면서 다가가 한구절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었다. 아무리 외우고 공부했다지만 어눌한 외국인의 발음을 힘겹게 들으며 따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꼈 수 있었다.

올해의 사역을 통해 나는 지난 해의 사역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나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정된 주님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의 작은 티끌만도 못한 나 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작년 그곳에서 추방당한 우리 팀이 떠나간 후에도,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단지 주님을 먼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말 부족하고 오히려 그곳 사람보다도 더 더럽고 이기적인 우리들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정연희(집사, 찬양위원회)

수화 칼럼 11 주기도문 7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1(월)하 - 12월 18(일)하	2-5교구 연합	김홍조
12월 11(월)하 - 12월 18(일)하	새가족영양부	나승은
12월 12(월)수 - 12월 19(일)수	16교구	문연식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4(일)하 - 1월 1(일)하	6교구	지유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8(일)하 - 12월 25(일)하	6교구	박광식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94	신유경	22	고등부	유지현(22)	1914	황세림	10	고등부	이창혁(10)
1895	신영준	16	고등부	김홍익(18)	1915	이현영	17	장년1부	이성섭(17)
1896	임지현	4	고등부	임정아(14)	1916	노재혁	22	고등부	이호준(22)
1897	차은혜	6	고등부	김유종(12)	1917	김현정	13	중등1부	이재혁(1)
1898	김경미	16	장년2부	소길순(16)	1918	서정주	14	중등2부	김희민(14)
1899	박지연	4	고등부	최지영(4)	1919	최은경	5	장년1부	이창혁(5)
1900	이혜경	4	고등부	이지영(4)	1920	이은지	6	장년1부	김지희(12)
1901	정현정	16	장년2부		1921	정승화	10	장년1부	김갑성(9)
1902	박선희	14	장년1부	이광현(24)	1922	토마스	25	외선부	이형선(15)
1903	이현숙	6	장년2부	이연순(2)	1923	전하경	19	장년1부	노미소(19)
1904	문선주	7	장년1부	김홍기(24)	1924	민소윤	17	장년1부	김지희(17)
1905	홍인애	11	대학부	박선정(3)	1925	이다은	4	소년부	임현지(4)
1906	임하영	24	초등부	조영철(11)	1926	김상훈	12	장년1부	배태경(9)
1907	김은지	20	고등부	안태원(20)	1927	정성현	17	장년1부	이종현(20)
1908	이민정	9	장년1부	정문준(4)	1928	임은경	21	장년1부	박유미(20)
1909	이정은	18	고등부	홍진준(3)	1929	김정인	1	장년1부	공석성(18)
1910	유지영	1	장년1부	김영지(4)	1930	김정수	1	장년1부	공석성(18)
1911	김희희	1	장년2부	김영지(4)	1931	김수정	1	중등2부	공석성(18)
1912	신승환	11	장년1부	허용우(24)	1932	김태영	24	장년2부	이세희(24)
1913	한희자	12	장년2부	한성민(8)	1933	로마인	21	외선부	이남숙(12)

* 순환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